

세계 도서관인의 큰잔치 IFLA를 다녀와서

천영춘 · 한국원자력연구기술정보보실(ycchun@kaeri.re.kr)

제 66차 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총회가 200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 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다. IFLA는 1927년 창설된 비정부 기구로서 그 주요 목적은 정보관리, 유통, 정보서비스 및 사서의 교육을 포함한 도서관 활동과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토론, 연구 및 개발을 증진시키고 도서관인들의 국제적 관심사를 논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전 세계에 문헌정보분야 및 사서들의 활동 그리고 현주소를 하나된 목소리로 대변하고 알리는 단일화된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분야의 세계적인 대표단체이다. 현재 143개국의 1622개 도서관 및 관련단체들이 가입되어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협회가 1955년 가입하였다. 이번 대회는 "Information for Cooperation: Creating the Global Library of the Future"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90개국 1800여명의 도서관인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 이두영 회장을 비롯한 총 36명이 참가하여 세계 각 국의 도서관인을 만나고, 배우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뜻밖의 참관기 의뢰를 받고 망설였으나, 여행 중에는 수시로 간단히 기록해 두는 습관에 의해 메모해 두었던 것과 출장계획이 미리 잡혀있어 준비해온 과정 그리고 나의 여행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행문 형식으로 적어 봄으로 미흡하나마 독자들로 하여금 본 대회와 여행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준비과정

해외출장이 결정되고 후속조치가 완료되니 내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 마음이 분주했다. 본출장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두려면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고 대회에 참가해야 했으므로 우선 IFLA로부터 발송되어온 "Information from the IFLA 2000 Secretariat"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등록에서부터 발표논문의 배포, 그리고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방문안내 등 참가자가 알아두어야 할 전반적 정보였다.

특히 눈에 띈 것은 IFLA Headquarters에서는 참가자의 명함을 접수받아 폐회식 때 추첨하여 당첨된 참가자에게는 2001년 IFLA Boston 대회에 무료 등록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명함을 챙겨두었다. 그러나 나중에 상세 계획을 받아보니 항공편 스케줄로 인하여 폐회식에 참가할 수 없었고 아무진 기대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실제적으로 본 회의 참가에 도움이 될만한 발표논문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IFLANET을 방문하였다. 그곳에는 발표논문 등의 상세 일정과

참가자에게 필요한 간단한 서지사항 등의 정보가 준비되어 있었다. 발표논문의 전체 일정을 출력하여 관심주제분야의 발표날짜, 시간 등을 표시하여 준비해 두었다.

8월 11일(금)

오전 8시까지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 새벽5시 출발 공항버스에 올랐다. 약속시간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전10시10분 비행기는 11시로 지연되었고 반드시 약속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긴장을 했던 터라 순간 피곤이 밀려와 출발하기도 전에 몹시 힘이 들었다. 11시 이스탄불(터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본 비행기는 일본을 경유하여 이스탄불로 가는 터키 항공이었다. 맨 먼저 도착한 곳은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었다. 본 공항은 갯벌을 매립하여 건설된 공항으로 건설당시는 야심에 찬 포부로 이 공항을 건설하였으나 현재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 활주로 등 주변이 갈라지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천 국제공항은 이러한 선례를 거울삼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튼튼한 공항으로 건설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곳에서 2시간 여를 기다린 후 이스탄불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방송은 터키어, 영어, 일어로 하더니 일어로 더빙된 영화까지 상영한다. 승객 중 1/3이상은 한국인인 듯한데 우리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내심 기분이 상했다. 그러나 기분 나빠 하기에 앞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그 길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은가!

8월11일 현지시간으로 오후 8시20분 16시간이 걸려 드디어 이스탄불의 Ataturk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밤 9시 시내의 Akgun 호텔에

첫날의 여장을 풀었다.

8월 12일(토)

이스라엘행 비행기는 밤 9시 50분에 있으므로 토요일 하루 이스탄불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터키는 사계절과 함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78만km²의 비옥한 토지에 6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은 나라이다. 이슬람교 국가이므로 이곳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많고 대부분의 모스크들이 돔과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먼저 파란 이즈텍 타일로 장식되어져 명명되어졌다는 블루모스크를 방문하였다. 7년 동안 건설되었다는 이 모스크는 6개의 첨탑이 있는 유일한 사원으로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였으나 실내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서 돔까지가 8m, 크고 작은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260개로 그 웅장함이 분위기를 압도하였다. 다음 방문지인 톱카프 궁전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 4개의 정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정원은 왕실호위에 관련된 의상과 물품들이 전시되어있으며, 제2정원은 국가 중요 행사시 도열하는 행사장으로 쓰였고, 제3정원은 오스만제국의 온갖 보물을 전시해 놓았다.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처분하면 터키의 외채를 갚을 수 있을 정도라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마지막 제4정원은 술탄(황제)이 거처하던 곳이다. 그 외 그리스 정교회로 사용되다가 이슬람 사원으로 쓰여졌으나 지금은 박물관으로 남아 있는 성소피아사원과 돌마바우체(Dolmabahce) 궁전을 방문하고 나니 어느새 오후 1시가 되었다.

마르마라 바다의 전망을 바라보며 터어키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라는 케밥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음식의 향이 비위에 거슬렸다. 만일을

위해 준비해 간 고추장과 함께 겨우 식사를 하고 콜라를 마시니 속이 좀 진정되는 듯하였다. 다음 걸음을 재촉하여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며 흐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다리를 통과하여 유럽에서 아시아 대륙을 건넜다. 이 다리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걸어서는 통과하지 못하며 반드시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만 건널 수 있다고 한다. 아마도 두 대륙 사이를 잔잔히 흐르는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다리를 걸어서 건너노라면 그 푸른 물결에 마음을 빼앗겨 세속을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가 보다. 해안 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출퇴근에 사용된다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되돌아왔다. 부지런히 재촉하여 이집트 카르나 신전에서 옮겨왔다는 데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를 포함한 3개의 고대 기념물과 벤허의 전차경기의 촬영장소로 쓰였다는 히포드롬 광장을 둘러보았다. 영화촬영 당시는 아주 웅장한 경기장이었으나 그 후 주변의 도시계획 등으로 많이 축소되어 현재의 모습은 비교적 적은 규모로 남아있었다.

오후 6시가 훌쩍 넘었다. 정말 강행군이었다. 짧은 일정에 가능한 많은 것을 둘러보려니 너무 너무 힘이 들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쉬고 싶은 심정이었다. 6시 30분 시내의 한국교포가 운영하는 한국음식점에서 오랜만에 고국의 냄새가 풍기는 맛있는 된장찌개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문화의 교차지로 황홀하기도 했고 낭만적이기도 했던 이스탄불을 뒤로하고 다시 이스라엘 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신이 다시 흐려지는 듯 하여 헤메고 있으니 한국도서관협회의 이현주부장님께서 청심환을 한 알 주신다. 그것을 먹고 나니 정

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새벽 12시 30분 드디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Ben-Gurion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스라엘 입국 시 중동 아랍권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되면 아랍권 국가에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듣던 대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마치고 준비된 버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바로 옆에 위치한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여독의 탓인 듯 잠이 오질 않았다.

8월 13일(일)

오늘은 일요일로 예루살렘을 여행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서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인접국으로는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이며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이곳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품고있는 곳으로 성지인 까닭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라. 다시 강행을 해야만 성경의 무대인 여러 장소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인 이 곳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크게 옛성(Old City)과 서 예루살렘(New City)으로 나누어져있다. 예루살렘성을 포함한 동쪽의 주요 기독교 성지들은 옛성에 속해있으며 이스라엘의 입법, 행정, 사법부와 신혼주택가 등은 서 예루살렘에 위치해있다. 아침 8시 30분 출발하여 예루살렘성에 도착하였다. 예수님 시대의 그 예루살렘은 현재의 구 도시 밑에 묻혀있다. 현재 이곳의 시가지들과 성벽과 성문들은 몇 세기 후에 건축된 것들이다. 현재의 예루살렘성은 16C초 오스만 터키의 술탄 술티만 1세에 의해 건축된 것이다. 모두 8개의 성문이 있으며,

그중 성문 위에 사자가 그려져 있어 사자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스테반의 문에 이르렀다. 이곳을 통과하여 오르다 보면 1초소에서 14초소에 이르는 예수님의 흔적을 따를 수가 있다. 제1초소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신 곳, 제2초소는 십자가를 지신 곳 등 마지막 제10-14초소는 성묘교회 지붕 위에 위치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어지신 곳 등 그 하나하나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리고있었다. 걸음을 재촉하여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내에 있는 베들레헴의 그리스도 탄생 교회를 방문하였다. 겸손의 문을 통과하여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문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을 타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마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인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구유를 직접 만져보려는 순례객으로 교회 안은 북적거렸으며 그러려면 족히 1시간이상은 기다려야 했으므로 우리 일행은 발길을 돌렸다. 시간은 이미 오후 2시가 훨씬 넘었다. 허기가 진다. 한국인 가정에서 김치찌개로 맛있는 점심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아직도 한 낮의 더위인데 유대인의 복장을 보니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까만 모자에 긴 까만 코트까지 차려입은 모습은 사진에서 보던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다. 아직도 율법을 철

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낀다.

8월 14일(월)

오늘은 대회장에 등록을 하는 날이다. 등록하기 전 시간을 활용하여 감람산에 올라 황금사원을 먼 발치서 보았다. 본 사원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의 궁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 후 성전은 파괴되었고 서기 638년 이슬람국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세운 황금빛 돔의 사원이다.

실제로 이 돔에는 황금이 쓰여졌다고 한다. 현재 이슬람 성지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군인은 문까지만 지키는 것이고 내부는 이슬람에 의해 철저히 관리,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곳에서 작은 충돌이 발생한다면 바로 중동전으로 확대될 수 있을 만큼 유대인과 이슬람이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성지이다. 성전산에 남겨진 60m의 통곡의 벽(Western Wall)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전 세계의 유대인 수백만이 연중 찾아와 순례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으로 경외의 장소이기도하다.

이 날도 긴 벽에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순례인파가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도 하며 또는 경전을 읽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쪽지에 소원을 적어 벽의 틈 사이에 끼워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벽 가까이 가 보니 틈 사이사이마다 소원이 적혀있음직한 쪽지가 짝 차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발길을 부지런히 옮겨 호텔로 돌아와 대회등록을 준비를 하여 대회장으로 갔다.

등록과 함께 대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대회장에는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등록을 마친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필자>

듯 봄비지는 않았다. 참가자에게 미리 발송되었던 Registration Receipt를 제시하고 등록을 마치니 참가자 명찰, 발표논문 CD-ROM, 논문교환 쿠폰, 초대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준다. 다른 많은 참가자들은 처음 만남이 아닌 듯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도하며 매우 즐거운 표정들이다. 벌써 각종 관련업체 및 출판사 등의 부스에는 각 국의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또한 "Introduction to IFLA for Newcomers"라는 사무국에서 마련한 처음 참가한 회원을 위한 대회설명회가 있었으며, 이미 표시해 두었던 관심분야의 각종 논문발표가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참가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오후 6시에 대회의 개회식이 Ussishkin Hall에서 시작되었다.



본 대회 조직위원장인 Sara Japhet은 기념연설에서 성경의 이사야서 60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세계 각 국에서 모인 도서관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21세기와 3번째 맞는 새 천년의 출발점인 지금 우리는 세계 교차로의 중심에 있으며 오직 "협력"만이 우리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협력을 강조하였다. 종교적 특성을 지닌 이스라엘에서 개최된 본 대회를 통하여 기억에 남는 좋은 다양한 경험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끝으로 성경의 신명기 28장 6절의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회를 맺었다. 이어

서 IFLA회장인 Christine Deschamps는 개회사를 통해 각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를 환영하며, 본 대회의 주제는 "미래의 도서관 창조를 위한 국제협력"이며, 이는 우리의 Global Communications System인 IFLANET과 더불어 세계의 도서관에 초점을 둔 IFLA의 역할이기도 하다. 다양한 주제의 각 Section과 Round Tables 등을 통하여 관심분야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심성의껏 본 대회를 준비한 개최국에 대한 감사표시를 마지막으로 개회사의 끝을 맺었다. 본 개회식은 연설 중간 중간에 합창단이 등장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부로 듣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극히 평이한 것이여서 내심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이어 환영 만찬과 민속공연이 이스라엘의 국립대학인 Hebrew University의 야외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는 미리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여 만찬장으로 향하였다. 도착하여보니 이미 도착한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었고 삼삼 오오 모여 식사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식사는 빵 한 조각과 음료수를 가져와 보니 앉을 자리가 없다. 우리가 서서 식사를 하고 있으려니 본 대회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국립도서관장회의의 참가를 위해 별도로 오신 국립중앙도서관장님 일행을 만나 반가이 인사를 했다.

한편에서는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공연에 맞추어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이에 질세라 우리 팀도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공연에 동참하였다. 해가 지고 나니 날씨가 꽤나 쌀쌀하였다. 특별히 추위를 많이 타며 감기에 몹시 약한 필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참석하여 추위에 견디느라 힘이 들었다. 늦은 밤 준비된 버스를 이용하여 호텔로 돌아왔다.

내일 참여할 세미나의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스케줄을 확인하고 Paper Handling Center에서 수령할 발표논문 교환목록을 작성하고 나니 새벽 2시가 다되었다.



8월 15일(화)

참가하고자 선정한 세션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고 PHC에서 발표논문도 수령해야 하므로 아침 일찍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회장으로 향했다. 대회장은 호텔에서 걸어서 5분 정도로 이동하기에 아주 편리하였다. IFLA대회는 전체적 대주제가 있고 산하 소 주제별 논문발표, Discussion Group, 워크숍, Guest Lecture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본 후 자신이 참가할 세션이나 워크숍 등을 정하고 해당 강의실을 찾아가야 한다. 이에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IFLA Express”가 있으며 이는 그날 그날의 상세한 대회일정, 변경내용, 당일 대회장 소식 등을 알려주는 일종의 DailyNewsletter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참조하면 대회참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오늘은 오전에 8개의 주제 하에 28편의 논문발표와 Guest Lecture가 있었고 이어서 오후에는 15개 주제 하에 50여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우리(필자와 KDI의 윤화진 팀장)는 8시 30분부터 시작되

는 Tatiana V. Ershova, Yuri E.Hohlov (Institute of the Information Society, Russia) 등이 발표하는 “Migrating from the library of today to the library of tomorrow: re- or evolution?” 라는 논문 발표장으로 향했다.

발표자는 다가오는 정보와 지식사회 내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 발전 방안에 관해 고찰하였다. 사회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전체적인 학문과 지식시스템의 발전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Information Age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제시하여야 할 개념적 변화에 따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지되어온 기존 제도와 전통적 접근방법으로부터 세계적 지식정보 유통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John Akeroyd (Learning and Information Services, SouthBank University, London)의 “The Management of Change in Electronic Libraries” 등을 경청했다. 그는 아직까지 Digital Library는 유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서관은 정보관련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으며, 수년동안 일어난 변화를 근거로 하여 미래에 접하게 될 도서관의 정보변화에 관한 예측을 Management of Change, Strategic Management, Procurement, Information Technology, Staffing and Staff Development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언급하였고,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경영자가 앞으로 일어날 이들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살펴봄에 이에 관련 있는 중요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본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를 만났다.

그가 발표한 Presentation 자료의 내용이 아

주 잘 정리되어 있어 입수하고 싶기도 하고 명함을 받아놓을 생각이었다. 그는 준비된 명함이 없다며 E-Mail 주소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하면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다음으로 대회장에 준비된 각종 부스를 돌아보기로 하였다. 세계 우수한 문헌정보관련 소프트웨어업체, 출판업체 및 도서관리에 필요한 장비관련 업체 그리고 영국의 BritishLibrary, 미국도서관협회(ALA),SLA(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및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의 독립된 부스를 포함한 70여 개의 Exhibitors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이스라엘의 의회도서관과 공공도서관등을 우리(필자, 이경란씨, 박상규씨, 윤화진씨, 강필순씨)가 스스로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의회는 호텔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용감하게 걸기 시작했다. 햇빛은 쨍쨍하고 바람 한 점 없었다. 외국에 나가 낯선 거리를 안내자 없이 물어 물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또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땀별에 한 40분은 걸려 드디어 의회를 찾았다. 한데 웬일인지 정문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실을 알고 보니 방문자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색하고 금속탐지기 까지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늘 전운이 감도는 곳으로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

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되었다. 정문에서 30분은 죽히 기다려 어렵게 의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정작 도서관은 방문하지 못하였다. 그날 따라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신 이스라엘 의회에서 의원활동을 직접 참관할 수 있었다. 이제 숨을 돌리고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공공도서관을 찾아볼 셈이다. 우리 모두가 지쳐 이번에는 택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외국인에게 택시요금 바가지 씌우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다. 택시에서 내려 또 물어 물어 드디어 공공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의 규모는 4층에 층별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그곳에 근무하는 사서의 일과 자료에 관한 열정과 관심에 새삼 놀라웠다.

다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저녁식사 후 이제 숨을 돌리고 나니 다운타운에 나가 노천 카페를 가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견이 일치하는 몇몇이 우리나라의 명동쯤 되는 예루살렘의 변화가를 그것도 밤 시간에 나갔다. 낮에 보는 예루살렘의 거리,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의 메마른 땅, 목말라 하는 듯한 나무들, 거치를 데로 거친 황토색을 칙박한 대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과 젊음이 있고 거기에 흐르는 낭만과 와인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곳에 와보지 않았으면 아마도 후회했을 것이다.

8월 16(수)

오늘도 아침 일찍 부지런히 자료를 챙겨 대회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Information Technology 세션의 Taly Sharon, Ariel J. Frank(Bar-Ilan University, 이스라엘)등이 발표하는 "Digital Libraries on

the Internet”에 참가했다. 발표자는 인터넷과 웹은 최근 몇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보 폭발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이다. 참으로 갑자기 출현한 검색엔진(SEs)은 가상공간의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여과되지 않은 정보가 우리 모두에게 쇄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의 방대한 양을 고려해 보면 웹은 구축되어질 전 세계의 가상도서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끝으로 그러나 이것만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인가? 라고 질문은 던지고 있다. 이제 강의실을 나와 어제 미처 둘러보지 못한 부스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관심분야의 부스에서 한가지씩 수집한 각종 자료가 한 짐이 되어 너무 무거웠다. 각 부스를 방문하여 데모를 보면서 설명을 듣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심을 스낵코너에서 간단히 때우고 오후에는 이스라엘의 국립대학인 Hebrew University의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교정의 파릇한 잔디였다. 예루살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잔디를 본 적이 없었다. 이곳에는 단행본과 학술지를 포함하여 약 3,000,000권의 장서와 그밖에 Manuscripts, Archives, Maps, Music Recordings와 같은 수천 Item의 Special Collections를 소장하고 있다. Library Staff는 총18명이 근무하며, 특이한 것은 개관시간이 일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금요일은 오전만 개관한다.

아마도 유대인의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회적 풍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태생의 미국 물리학자인 Albert Einstein이

유대인이며 Hebrew University의 설립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며 이곳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Albert Einstein Archives 자료를 Special Collections의 한가지로 별도 소장,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으며 모든 강의를 히브리어로 한다고 한다. 유대민족의 대단한 자존심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니 정말 많이 피곤하여 그냥 눕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공식대회 참가는 모두 끝나고 저녁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한국 도서관인 간담회가 호텔 내에서 있었다. 처음으로 참가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두영 회장님께서 그동안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수행하셨던 일, 특히 2006년 IFLA 대회를 유치하게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하신 후 한상완 교수님의 건배로 이어졌다. 다른 대회에서 개최되었던 것과는 달리 정치와 종교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개최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용히 식사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감하였다. 정식 대회일정은 18일까지이나 우리 일행의 출국 스케줄 관계로 폐회식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제 대회장 호텔에서 마지막 밤이다. 오늘 마지막 밤에 그 동안의 여행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의 A조 모임을 갖고 일주일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울에서의 다음 만남을 갖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8월 17일(목)

아침 8시 호텔을 출발하여 9시 Ben-Gurion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들던 데로 매우 까다로운 이스라엘공항의 출국심사를 통과하여 이스탄

불행 비행기에 올랐다. 오후 3시 40분 Ataturk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오후 5시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낯익은 얼굴들과 정겨운 우리의 산하를 대하니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없이 푸근하였다. 이번 IFLA대회는 개최지의 지리적 특성으로 항공편이 일주일에 2회(월, 금) 뿐이었고 직선노선이 없는 까닭에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실제 대회 참가일이 다른 대회보다 적었던 듯싶다. 그러나 정말 숨 가쁜 일주일이었다. 벌써 모든 일정이 모두 끝났다니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참가기간 중에는 꼭 짜여진 일정으로 인하여 차분히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였다. 이제 그간의 일을 뒤돌아보고 챙겨온 자료를 정리, 검토하노라면 또 다른 소득이 있을 것이다.

IFLA 참관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음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을 위해 꼭 챙겨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 대회 참가 전에 미리 발표될 논문 중 관심주제분야의 논문을 체크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IFLA 조직위원회에서 매일매일 발간하는 "IFLA Express"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리하면 더욱 풍성하고 값진 대회 참가 경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대회의 성공적 참가를 위해 수고해주신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주일동안 여러 가지 국제적 경험과 좋으신 분들과의 만남은 오랫동안 기억 될만한 여행이 될 것이다.

2000 **신간**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서관리 이론과 실제

Collection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 A Handbook for Librarians

G.E. Gorman, Ruth H. Miller 편

신국판 617쪽 정가 20,000원

남 태 우 역

(회원보급가 16,000원) ISBN 89-7678-044-2

주요 목차

- 장서관리의 미래 : 21세기의 장서개발과 학술커뮤니케이션
- 장서관리에 대한 기술적 기여 : 대학도서관에서 인터넷과 장서관리
- 전자환경에서의 자료의 선정 : 장서개발정책과 전자정보자원
- 미래의 장서평가 : 장서개발과 업무수행의 측정
- 전자문헌제공과 자원보존 : 전자문헌제공 서비스와 장서관리에 미치는 영향
- 장서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편성 : 새로운 세기의 장서개발을 위한 직원과 조직편성
- 협력장서개발과 관리 : 협력장서개발의 원리, 장애요소 및 구성요소
- 최신문헌리뷰

한국도서관협회 주소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